

양촌선생(陽村先生)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

양촌선생(陽村先生)의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은 『주역』의 대의(大義)와 소의(小義)를 밝히는 책이다. 양촌선생은 이 책을 통해 주역의 대의(大義)와 소의(小義)를 밝히는 데에 힘썼다. 이 책은 주역의 대의(大義)와 소의(小義)를 밝히는 데에 힘썼다. 이 책은 주역의 대의(大義)와 소의(小義)를 밝히는 데에 힘썼다.

(지난호에 이어)

이(履)

육삼(六三) 애꾸가 볼 수 있고 절름발이가 걸을 수 있는 정도이다. 호랑이 꼬리를 밟아 사뭇을 무니 흉하고 무인이 대군(大君)이 된다(眇能視,跛能履,履虎尾,噬人,凶,武人 爲于大君).

삼(三)이 음으로 양의 자리에 거하면서 재주는 없으나 의지는 강건하여 망령되어 움직이는 것이 마치 무인이 대군이 된 것과 같다. 오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위(爲)는 “서경(書經)‘우서(虞書)’에서 ‘너희들이 시행하라’고 했을 때의 ‘위’와 같으니 명령에 따른다는 의미이다. ‘대(大)’는 양이고 건은 ‘군’이다. 육삼이 건의 아래에 있으면서 상구에 응하므로 힘 때문에 대군에게 쓰임새가 있게 된다. ‘사람을 무는’ 상이므로 그 점괘가 정말 흉하지만 또 이러한 상(象)이 있으므로 모두 흉하지는 않다.

“내가 전에 이 효를 보면서 ‘위우(爲于)’의 ‘우’를 곧바로 대군이 되는 것으로 풀이해서서 안 된다고 의심하고, 이 효는 재주는 없으나 의지는 강건한 이가 대군의 지위에 있으면서 명령되어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마치 눈 하나가 없는 이가 볼 수 있게 되면 한 쪽으로 치우쳐 균형 있게 볼 수 없고, 한 발을 저는 사람이 걷게 되면 발걸음이 절룩거리 나아가기 어려운 것 같다. 대개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험난함에 처하여 반드시 흉하게 되는 것이 마치 호랑이를 밟아 물리게 되는 것과 같다.

이제 오징의 설을 보니 ‘우’자에 나아가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위에 있는 것을 대군으로, 삼(三)을 대군에게 쓰이는 것으로 보았다. 또 흉함은 위에 있으므로 신하가 군주에 의해 등용되는 것은 흉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효의 상(象)은 재주는 없으나 의지가 강하고 바른 도리가 아닌 것을 실행하면서

그 할 수 없는 것을 하려 하여 흉함을 초래하는 것이다. 위아래가 같은 뜻이니 저것은 흉하고 이것은 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다만 중요한 것을 주로 하여 말하였으므로 흉함이 ‘질인’의 밑에 있다고 하였다. 이것의 흉함은 이미 드러난 것이고 무인의 흉함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흉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군주에게 쓰이게 되었다면 쓰고 버리는 것은 군주에게 달린 것이어서 자기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무인은 자신의 지위에서 망령되어 무언가를 하려는 자이니 끝내 흉함이 없겠는가?

구오(九五) 강하게 결단하여 밟으면 바르더라도 위대롭다(夫履, 貞厲).

오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괘는 다섯 강이 하나의 유를 결연하게 제거하려는 궤이다. 이(履)도 강이 다섯에 유가 하나인 궤이지만 아래위가 뒤바뀌었을 뿐이다. 육삼은 중(中)하지도 정(正)하지도 않은 유로서 아래로 강(剛)인 구이를 밟고 있으니 소인이 군자를 능멸하는 형국이다. 구오와 구이는 덕이 같고 위(位)응이면서 결연하게 육삼을 제거하므로 ‘결단하여 밟는다’라 고 한 것이다. 그렇지만 양에 음이 없을 수 없는 것은 천지의 항상된 도리이고, 군자에게 소인이 없어서 안 되는 것 또한 고급의 항상된 원리이다. 소인은 제거되어야 할 때에 놓여 있고 제거할 수 있는 세력이 있다면 정녕 반드시 제거될 것이다. 그러나 때나 세력이 혹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왜에서 하나의 유가 다섯 강을 타고 있으니 이는 마땅히 제거해야 할 시기이고 제거할 수 있는 형세이므로 결연하게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履)의 육삼은 강인 구이를 타고 있기는 하지만 조화와 기쁨으로 상구(上九)에 응하고 힘을 내서 군주를 받들고 있다. 저 자신이 중(中)의 자리에 있지도 않고 정(正)의 자리에 있지도 않아서 양에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공공(共工)·곤

(姁)·환도(驩兜)가 직(稷)·설·고요(皋陶)·기(夔)와 요의 조정에 함께 있단한들 요의 통치에 무슨 손해날 것이 있겠는가? 반드시 결연하게 제거하려 한다면 도리어 위험하다. ‘위험’이란 때가 마땅치 않고 형세상 쉽지 않다는 뜻이다.

“내가 생각건대, 이 궤의 ‘대상전(大象傳)’에 대하여 주자는 “정장”이 알비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나도 감히 ‘결단하여 밟는다’는 것의 의미는 그 설이 완백하다고 생각한다. 군자가 소인에 대해서 반드시 제거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고 제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소인이 ‘얼굴색을 바꾸어 순종하면’ 제거할 필요가 없다. 이 때는 잠시 가려져 교화되기를 기다리니 이것이 인이다. 세력이 강성하고 무리가 많다면 제거할 수 없다. 이 때는 잠시 그들을 용납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이다. 자기의 처지가 바르고 재주가 있다는 것을 믿고 가볍게 움직여 도리어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상구(上九) 밟아온 것을 보고 상서로운 것을 살피되 두루 했으면 크게 길하다(履履考祥, 其旋, 元吉).

여러 궤 가운데 ‘크게 길하다’고 한 것이 초(初)이(二)·삼(三)·사(四)·오(五)효일 경우 처음에는 크게 길하지만 끝내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履)의 경우는 상구에서 크게 길하다고 하였다. 이는그가 밟아온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두루 완비하여 크게 선하고 길하기 때문에 ‘상전’에서는 “크게 길함이 위에 있으니 크게 경사가 있다”고 하였다. 오징은 ‘고상기선(考祥其旋)’을 구로 보고 아버지에 대한 상(贗)을 마친 것으로 풀이하였다. 비록 그가 예를 다하여 상례를 치른 것이 가상하기는 하지만 또한 자식으로서 담연히 해야 할 일이니 어찌 아버지의 상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크게 길하다’거나 ‘크게 경사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다음호에 계속)

論語解說(18)

논어 해설

▣ 權貞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지난호에 이어)

제6편옹야(雍也)

제1장

공자가 말하였다. “옹은 가히 남면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해줄만하다.” 중궁이 자상백자에 관해 물으니 공자가 말하였다. “그의 사람됨이 관했고 소탈하다.” 중궁이 말하였다. “거처하는 것이 공경스럽고 행동하는 것이 소탈하며 그렇게 백성들에게 일한다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거처하는 것이 공경스럽고 행동하는 것이 소탈하다면 지나치게 소탈한 것이 아닐까요?” 공자가 말하였다. “옹의 말이 그럴 듯하다.”

[원문]
子曰 雍也 可使南面이로다 仲弓이 問子桑伯子하건대 子曰 可也나 簡이나라 仲弓이 曰 居敬而簡하여 以臨其民이면 不亦可乎니이까 居簡以行簡이면 無乃大簡乎니이까 子曰 雍之言이 然하다도다.

[자왈
옹야는 가사남면이로다 중궁이 문자상백자하건대 자왈 가야나 간이나라 중궁이왈 거경이간하여 이임기민이면불역가호니이까 거간이행간이면무내대간 호니이까 자왈 응지언이연하도다.]

[이해]
염옹(雍)은 자[字]가 중궁(仲弓)이며, 노나라 사람이고 공자의 제자로 공자보다 스물아홉 살이 연소하였다. 남면(南面)한다 함은 군왕(君王)의 지위에 앉는다는 뜻으로 중궁의 인품에 대해 공자가 그럴만한 도량이 있다고 칭찬한 것이다. 자상백자(子桑伯子)는 노나라의 대부(大夫)로 소탈하다는 것은 겨우 가깝다는 의미를 지닌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제2장

애공(哀公)이 제자를 중에 누가 배우기를 좋아하느냐고 물었는데, 공자가 대답하였다. 안희(顔回)라는 사람이 있어 배

[자화사어제러니
염자위기모청속하건대 자왈 여지부하라 청악하건되왈 여지유하라하니 염자여지속오병하건대 자왈 적지적제야에 승비마의경구하니 모문지아하니 군자주급이오 불게부라 원사위지제러니 여지속구백이거늘 사하건대 자왈 무하라 이어어인리향당호인지]

[이해]
자화[子華]는 공식적[公西赤]을 가리키며, 염자[冉子]는 염구[冉求]를 말한다. 원사[原思]는 이름이 헌[憲]자[字]는 자사[子思]로 노나라 사람이며 공자보다 서른여섯 살이 연소하였고 마흔 살에 죽었는데 공자의 제자이며 공자가 노나라 사구였을 때 그의 가계가 되었다. 공식호[公西赤]는 부유하였으므로 더 늘려주지 않아도 되고 원원[原憲]은 가난하였기 때문에 굳이 사양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데 여섯 집을 인[鄰]. 스물다섯 집을 리[里]오백 집을 당단 이천오백 집을 향[鄉]으로 분류했던 것이 당시의 제도였다.

[자화사어제러니
염자위기모청속하건대 자왈 여지부하라 청악하건되왈 여지유하라하니 염자여지속오병하건대 자왈 적지적제야에 승비마의경구하니 모문지아하니 군자주급이오 불게부라 원사위지제러니 여지속구백이거늘 사하건대 자왈 무하라 이어어인리향당호인지]

[이해]
자화[子華]는 공식적[公西赤]을 가리키며, 염자[冉子]는 염구[冉求]를 말한다. 원사[原思]는 이름이 헌[憲]자[字]는 자사[子思]로 노나라 사람이며 공자보다 서른여섯 살이 연소하였고 마흔 살에 죽었는데 공자의 제자이며 공자가 노나라 사구였을 때 그의 가계가 되었다. 공식호[公西赤]는 부유하였으므로 더 늘려주지 않아도 되고 원원[原憲]은 가난하였기 때문에 굳이 사양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데 여섯 집을 인[鄰]. 스물다섯 집을 리[里]오백 집을 당단 이천오백 집을 향[鄉]으로 분류했던 것이 당시의 제도였다.

[원문]
子曰 雍也 可使南面이로다 仲弓이 問子桑伯子하건대 子曰 可也나 簡이나라 仲弓이 曰 居敬而簡하여 以臨其民이면 不亦可乎니이까 居簡以行簡이면 無乃大簡乎니이까 子曰 雍之言이 然하다도다.

[이해]
자화[子華]는 공식적[公西赤]을 가리키며, 염자[冉子]는 염구[冉求]를 말한다. 원사[原思]는 이름이 헌[憲]자[字]는 자사[子思]로 노나라 사람이며 공자보다 서른여섯 살이 연소하였고 마흔 살에 죽었는데 공자의 제자이며 공자가 노나라 사구였을 때 그의 가계가 되었다. 공식호[公西赤]는 부유하였으므로 더 늘려주지 않아도 되고 원원[原憲]은 가난하였기 때문에 굳이 사양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데 여섯 집을 인[鄰]. 스물다섯 집을 리[里]오백 집을 당단 이천오백 집을 향[鄉]으로 분류했던 것이 당시의 제도였다.

제4장

공자[孔子]가 중궁[仲弓]에게 말하였다. “얼룩소의 새끼라도 털이 붉고 뿔이 바르다면 비록 사람들이 제물로 쓰지 않으려 한다. 해서 산천의 신이냐 그것을 버리겠느냐.”

[원문]
子謂仲弓曰 牛犬之子라도 駢角이면 雖欲勿用이면 且[且]이아 其舍諸리오.
[자위중궁왈
이우지자라도 성자각이면 수목물용이면 산천이야 기사저리오.]

[이해]
얼룩소의 새끼지만 주나라의 사람들이 숭상하는 붉은 빛이고 뿔이 바르게 났을 경우 제사지낼 사람들이 망실일 줄은 모르나 산천의 신이냐 거부할 까닭이 없다는 공자의 말은 염옹의 부친이 비천한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 자적인 중궁은 현능함으로 아버지의 악행으로 훌륭한 친정의 그자식이 버려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여 중궁을 격려 분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특기고 (56화)

이광호(연세대 철학과 학과장)



선비의 고장 경남 밀양은 경북 영동·상주 등과 더불어 유학과 전통문화 및 선비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 맥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의열단장 김원봉과 권준 장군으로 그 청춘을 민족의 독립과 조국 광복을 위해 불꽃처럼 살았던 많은 투사들이 있었다.

권준 장군은 당시 중국군 장교 신분으로서, 직간접적으로 한인독립운동에 참여하였는데, 1931년 9월 18일 ‘민주사범’ 발발을 계기로 활성화된 재중 한인독립운동진영의 재정비 움직임과 맞물려, 그의 항일열정도 다시 구체화되었다.

1931년 후반기 의열단은 민주사범으로

고양된 중국인의 반만항일(反滿抗日) 의식을 배경으로, 항일투쟁 노선을 재정비하기 시작하였다. 그 복안은 중국정부의 재정적·군사적 지원을 토대로, 독자적인 투쟁역량을 강화한다는 요지였다.

1932년 초 남경(南京)에 집결한 의열단 지도부는 동북의용군후원회(東北義勇軍後援會)·동북난민구제회(東北難民救濟會) 등 중국인 항일운동단체를 상대로, 한중 연합 기구의 구성을 타진하는 한편, 중국정부를 상대로 한중 연합전선의 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의열단의 교섭활동에 있어서는 의열단 지도부의 황포군관학교 출신 이력이 유익한 인연으로 작용하였다. 1932년 3월 초부터 김원봉 장군은 황포군관학교 동기생인 삼민주의역행사(三民主義力行社: 순원(孫文)의 ‘삼민주의를 힘써 실천행동하는 단체’ 라는 뜻, 일명 남의사藍衣社,

항일독립운동의 선봉 애국지사 백인(百忍) 권준(權駿) 장군<8>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이하 ‘역행사’) 서기(책임자)인 중국인 덩지에(滕傑)와 사전 접촉하였고, 같은 해 6·7월 경 중국화민국 정부 군사위원회 의 승인을 얻었다.

의열단의 한중 연합 제의를 수락한 군사위원회 장개석(蔣介石) 위원장은 황포동학회(黃埔同學會)와 역행사 간부들에게 구체적인 지원을 지시하였다. 장개석 위원장이 의열단 건의를 수락한 데에는 김원봉과 의열단 지도부의 황포군관학교 출신 이력, 군벌(軍閥)들에 대한 토벌전쟁인 ‘북벌전’ 과정에서 검증된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의 뛰어난 역량, 이봉창·윤봉길 의사 등 많은 독립무장 의거를 계기로 형성된 한인독립운동 진영에 대한 신뢰감 등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후 김원봉과 덩지에, 간귀권(干國勳, 황포군관학교 5기 졸업생)은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朝鮮革命軍軍事政治幹部學校)의 설립을 결정하고, 훈련인원·훈련기간·교육과정·설립경비·운영경비·졸업후 활동 방안 등을 입안하였다.

간부학교의 정식 명칭은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 간부훈련반 제6대’였고, 설립 목표는 ‘한국의 절대독립’과 ‘민주피로국의 탈환’이었다. 간부학교 졸업생들의 활동 방침으로는, 1. 일만요인(日滿要人:일본과 민주국의 주요인물)의 암살, 1. 재단 항일단체와의 제휴, 1. 국내·만주지역 노동·농민층에 대한 혁명적 준비공작, 1. 위조지폐 납발을 통한 민주국의 경제교란, 1. 특수활동에 의한 물자 획득 등이 결정되었다.

훈련장소로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남경 교외 탕산(湯山)에 있는 선사묘(善祠廟)라는 사당(찰)이 선정되었는데, 당시 군사위원회 간부 훈련반 통신대 관

리 아래에 있었다. 간부 훈련반은 6개 대(隊)로 편제되어 제5대까지는 중국인들이 수용되었고, 제6대에 한국인들이 수용되었는데, 이곳이 곧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였다.

역행사 측은 간부학교 운영을 위한 경상비·임시사업비는 물론, 졸업생 파견 시 활동자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등의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입교생 교육훈련에 필요한 총기·탄약 등의 물자와 장비·인력을 제공하였다. 또 중국군 장교를 파견하여 교육을 보조하였다. 이처럼 중국정부의 물적 인적 지원이 다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부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의열단에 위임되었다.

운영은 교장 김원봉을 정점으로 의열단 지도부가 담당하였다. 설립 초기의 조직은 교장(주임):김원봉, 비서 겸 교관:왕현치(王現之), 군사요:이동화(李東華)·김중·권준, 정치조:김정우(金政友)·왕현지·한일래(韓一來 혹은 高齡詣), 총무조:이집중(李集中)·빠시추(畢性初, 중국인), 대부실(隊附室): 신악·노을룡·이철호(李哲浩), 의무관실:다이(戴)모(중국인), 외교주임:김원봉(겸임)이었다. 권준은 1기 생에게 축성학(築城學)을 가르쳤다. 그가 동제대학에서 공과를 전공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여기까지가 비교적 쉽게 확인이 가능한 권준 장군의 항일역정이다. 의열단 창단멤버, 황포군관학교 4기 졸업생, 황포군관학교 무안분교 교관, 유약한국혁명청년회 중심인물,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교관 등의 이력은 그의 역동적이고 선 굵은 삶의 자취를 드러내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明心寶鑑

명심보감

▣ 권혁재 (본원 종사 연구위원)

省心篇(省心篇 繼續)

것이다.

참고: 參·참·여할 참, 罨·머무름 유, 銘·새길 명, 巧·재주 교, 遷·돌아올 환, 餘·남을 여, 祿·복, 廷·조정 정, 拙·옹졸할 졸, 歎·중 노, 昔·과로을 고, 船·배 선, 堪·견딜 감, 逕·널길 경, 載·짐을 재, 獨·홀로독, 重·무거울 중, 芥·들 중, 之를 심, 難·어려울 난, 宜·마땅 의, 교(巧)·재주를 말한다.(재주 교)

● 貧居陋市無相識(빈거요시무상식)이요 富在深山有遠親(부주심산유원친)이니라
해설: “가난하게 살면 변화한 시장거리에 살아도 서로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요,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면 깊은 산속에 살아도 먼देश 찾아오는 친구가 있느니라.”

● 人義(인의)는 盡從負處斷(진중빈처단)이요 世情(세정)은 便可有錢家(변왕유전가)이니라.
해설: 사람의 의리는 다 빈한한데서 끊어지고, 세상의 인정은 모를지가 돈 있는 집으로 쓸리게 마련이니라.

● 黃金千兩(황금천량)이 未爲貴(미우귀)요 得人一語·勝千金(득인일어·승천금)이니라
해설: 황금 천량이 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좋은 말 한마디를 듣는 것이 천금보다 낫느니라.

● 巧者(교자)는 拙之奴(졸지노)요 苦者(고자)는 樂之母(낙지모)니라.
해설: 재주있는 사람은 재주없는 사람의 종이되고, 괴로운은 즐거움의 근본이니라.

● 小船(소선)은 難堪重載(난감중재)요 深溪(심경)는 不宜獨行(불의독행)이니라.
해설: 작은 배는 무겁게 짐을 실으면 견디기 어렵고 오스한 길은 혼자 다니기에 마땅치 못하느니라.
● 史記에 曰(사기에 왈) 郊天禮廟(교천예묘)는 非酒不享(비주불향)이요 君臣朋友(군신붕우)는 非酒不義(비주불의)요 鬪爭相和(투쟁상화)는 非酒不勸(비주불권)이라 故(고)로 酒有成敗而不可泛飲之(주유성패이불가범음지)니라.
해설: 사기에 말하기를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사당에 제례를 올릴 때에도 술이 아니면 흥향이 없을 것이요, 임금과 신하, 벗과 벗 사이에도 술이 아니면 의리가 두터워지지 않을 것이요, 싸움을 하고 서로 화해함에도 술이 아니면 권하지 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술은 성공과 실패를 얻는 것으로 가히 함부로 마시지 못하느니라.”고 하였다.

● 史記에 曰(사기에 왈) 郊天禮廟(교천예묘)는 非酒不享(비주불향)이요 君臣朋友(군신붕우)는 非酒不義(비주불의)요 鬪爭相和(투쟁상화)는 非酒不勸(비주불권)이라 故(고)로 酒有成敗而不可泛飲之(주유성패이불가범음지)니라.
해설: 사기에 말하기를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사당에 제례를 올릴 때에도 술이 아니면 흥향이 없을 것이요, 임금과 신하, 벗과 벗 사이에도 술이 아니면 의리가 두터워지지 않을 것이요, 싸움을 하고 서로 화해함에도 술이 아니면 권하지 못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술은 성공과 실패를 얻는 것으로 가히 함부로 마시지 못하느니라.”고 하였다.
참고: 사기(史記)는 전한 무제(前漢 武帝) 때 사마천(司馬遷)이 황제(黃帝)로부



터 한무제(漢武帝) 때까지 약 3천년 동안의 중국 왕조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다.

중재(重載)=무겁게 싣는 것, 난감(難堪)=견디기 어려운 것, 심경(深溪)=오스한길, 요(邀)=맞이하는 것, 맞을 요, 빈객(賓客)=손님, 隣·떠들 요(료), 요시(鬧市)=번화한 시장거리, 遠親(원친)=먼देश 찾아오는 친구, 塞·막을 색(색), 缸=항아리 항, 樵=땃길 횡, 거스릴 횡, 鼻·코 비, 處·곳 처, 斷=끊을 단, 桴·뿔 징, 錢=돈 전, 簪·금색할 군, 蹠=성길 소, 郊=돌 교, 廟 =사당 묘, 朋·벗 붕, 友=벗 우, 鬪·싸울 투, 爭=다툼 쟁, 敗=패할 패, 泛=뜰 벉, 享=흠향할 향, 飲=마실 음

● 子曰(자 왈) 志士於道而恥惡衣惡食者(사지어도이치악의악식자)는 未足與議也(미족여의야)이니라.

해설: 공자가 말씀 하시기를 “선비가 도(道)에 뜻을 두면서 허름한 옷을 입고 값싼 음식을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서로 더불어 의논할 사람이 못되느니라.”고 하셨다.

● 士有友則賢交不親(사우투우즉친교불친)하고 君有臣則賢人不至(군유투신즉현인부지)니라.
해설: 선자가 말하기를‘선비가 벗을 두기하는 일이 없으면 어진 벗과 친할 수 없고, 임금이 신하를 두기하는 일이 없으면 어진 신하가 오지 않느니라.’고 하셨다.

● 天生無祿之人(천불생무복지인)하고 地不長無名之草(지부장무명지초)이니라.
해설: “하늘은 복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느니라.”

● 大富(대부)는 由天(유천)하고 小富(소부)는 由勤(유근)이니라.

해설: “큰 부자는 하늘에 달려 있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 달려 있느니라.”

● 成家之兒(성가지자)는 惜糞如金(석분여금)하고 敗家之兒(패가지자)는 用金如糞(용금여분)이니라.

해설: “집을 잘 이룰 아이는 똥을 야기기를 금과 같이하고, 집을 망칠 아이는 돈 쓰기를 똥과 같이 한다.”

참고: 恥=부끄러울 치, 與=더불어 여, 議=의논할 의, 筭=풀 수, 好=무기할 투, 祿=복록 즉, 樵=아갈 쟁, 敗=패할 패, 糞=똥분, 慎=삼갈 신, 妨=해로울 방, 由=말미암을 유, 勤=부지런할 근, 富=부자 부.